

# 사라봉의 낙조



사라봉길에서 만나는 사라봉의 낙조는 제주의 아름다운 열 가지 풍경 중 하나로 꼽힌다. 아름다운 석양과 더불어 제주와 육지를 이어주는 제주항의 모습, 그리고 수려한 해안절경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사라봉길** | 제주시 건입동 709-4 ~ 제주시 건입동 505(약 0.9km)

**고오니길** | 제주시 건입동 705-1 ~ 제주시 건입동 533(약 0.8km)

**칠머리길** | 제주시 건입동 1033-15 ~ 제주시 건입동 943-1(약 0.2km)

**연무정길** | 제주시 건입동 1038-1 ~ 제주시 건입동 1274-18(약 0.7km)

**임항로** | 제주시 삼도2동 1192-6 ~ 제주시 건입동 1045-1(약 3km)

**사라봉동길** | 제주시 건입동 602-2 ~ 제주시 건입동 831-3(약 1.6km)

**고마로** | 제주시 일도2동 132 ~ 제주시 일도2동 68-13(약 1.5km)

## 사라봉길 | 사라봉

사라봉을 둘러싸고 있는 길은 오름의 이름을 따서 **사라봉길**이라 부른다. 제주시내의 동쪽 해안가에 있는 오름인 사라봉은 사봉낙조로 유명하다. 사라봉에서 바라보는 석양의 아름다운 경치를 말하는 사봉낙조는 영주십경 중 하나로 꼽힌다. ‘사라’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해석은 없다. 다만 ‘사라(沙羅, 紗羅)’의 한자어에 미루어보아 ‘동쪽 땅’ 또는 ‘신성한 땅’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한다. 사라봉은 바다와 맞닿아 있어 정상에 오르면 넓게 트인 전망이 가슴까지 시원하게 한다. 맑은 날에는南海의 여러 섬의 모습까지도 간혹 보일 때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라봉 정상에 봉수대를 설치해 지나가는 배를 감시했다. 그러다 적이 침입하거나,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통신 수단으로 사용했다. 오늘날 사라봉은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인근의 별도봉과 함께 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식공간이자 산책 코스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사라봉

**사라봉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열사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기리는 모충사로 이어진다. 모충사에는 세 개의 탑이 세워져 있다. 의병항쟁 기념탑과 순국지사 조봉호 기념비, 의녀반수 김만덕의 묘탑이다. 모충사에는 의녀반수 김만덕의 무덤도 자리하고 있다. 소박하게 마련된 무덤은 허기진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던 그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무덤 옆에는 김만덕의 일대기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김만덕의 삶의 길을 되짚어 볼 수 있다.

## 고으니길 | 고이니무루

사라봉길과 나란히 나 있는 **고으니길**은 사라봉 남쪽에 있는 고이니무루라는 언덕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김만덕의 묘는 원래 고이니무루에 있었다. 그러다 1970년대 도로가 확장되면서 지금의 모충사 자리로 옮겨졌다고 한다. <탐라실기>에는 화북에 있는 해신사와 고이니무루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옛날 목사가 배를 타고 화북포구로 들어오던 중에 배에 구멍이 나서 침몰할 위기에 처했다. 그 때 커다란 뱀이 어디선가 나타나 구멍을 막아준 덕분에 목사 일행은 죽을 위기를 넘기고 무사히 땅에 닿을 수 있었다. 배에서 내린 뱀이 고

으니마루 서쪽에 있던 굴로 들어가자 목사는 그 자리에 사당을 만들고 매년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그후 제주목사가 부임하면 이 사당에 인사를 드리며 무사히 바다를 건너온 것에 감사해 했는데 이것이 화북포구에 있는 해신사의 유래가 되었다고 전한다.

## 칠머리길 | 칠머리당

칠머리길은 어부와 해녀들이 굿이나 기원을 하기 위해 칠머리당에 다니던 길을 의미한다. 사라봉에는 칠머리라고 부르던 바다를 향해 돌출된 언덕에 칠머리당이 있었다. 제주 바다의 험한 바람과 파도, 그리고 바닷속의 암초와 해류와 맞서 싸워야 했던 해녀들은 자연의 힘을 온 몸으로 절감했다. 그 거대한 힘 앞에서 해녀들은 초월적 존재인 신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다. 해녀들이 신을 모시던 전통은 면면히 이어지면서 하나의 신앙으로 자리잡았다. 이렇게 남은 유산이 바로 영등굿, 잠수굿, 용왕제 등의 풍어제이다. 칠머리당에서는 매년 음력 2월이면 영등굿을 연다. 영등할망이 제주에 들어오는 2월 초하룻날은 영등신을 맞이하는 영등환영제를 열고, 영등할망이 돌아가는 2월 15일에는 영등송별제를 열면서 한 해 동안 바다에서 무사 안녕하기를, 그리고 해산물과 농작물이 풍요롭기를 기원한다. 칠머리당 영등굿은 2009년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연무정길 | 연무정

칠머리길과 이어지는 연무정길은 과거 연무정이 있었던 곳이라는 의미로 부여된 이름이다. 연무정은 조선 중기에 제주목사가 병사들을 훈련하고 명령을 내리기 위한 곳으로 마련하였다. 연무정을 세운 신경호 목사는 제주가 온통 돌이 널려 있어서 병사들을 훈련할 곳을 찾지 못했는데 다행히 이 지역은 평평한 지형이어서 하늘이 준 연습장으로 여겼다고 한다. 이후 연무정은 몇 번에 걸쳐 보수되고, 자리를 옮기면서 명맥을 유지해 왔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연무정 자리에는 제주동초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제주를 지키기 위해 맹훈련을 하던 병사들의 함성 소리는 사라지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만 가득하다.

## 임항로 | 제주항

제주항을 지나는 도로라는 의미로 부여된 임항로는 서부두에서 시작해 제주항을 지나 동문로까지 이르는 길이다. 제주항은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항구이다. 1927년에 개항한 이래 제주의 중심 항구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항 이전에는 건입포 또는 산지포로 불리던

포구가 있어서 고기잡이 어선들과 육지와 제주를 왕래하는 배들이 드나들었다. 그 덕분에 포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번화가를 이루었다. 건입포구와 가까운 곳에 김만덕 객주터가 있었던 것도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아 장사를 하기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목선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바람과 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주로 들어오는 포구는 화북포구나 조천포구였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증기선 운항이 시작되자 바람과 상관없이 건입포로 바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 이후로 건입포는 제주의 해상관문으로서의 본격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제주도내 최대 규모의 항구가 되어 많은 관광객과 제주 사람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많은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제주항

## 사라봉동길 | 국립제주박물관

사라봉의 동쪽 지역을 지나는 **사라봉동길**은 일주동로에서 갈라져 나와 사라봉 둘레를 지나는 길이다. 이 길에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국립제주박물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제주의 탄생에서부터 선사시대의 생활모습, 탐라국 시대의 문화, 고려와 조선시대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 **사라봉동길**은 국립제주박물관과 우당도서관을 거쳐 사라봉공원을 가로지르고 사라봉 등대까지 이어진다. 제주항과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절벽에 세워진 사라봉의 등대는 제주 최초의 유인 등대라고 한다. 1916년에 무인등대로 시작해 이듬해 유인등대로 변경된 후 지금까지 100년 가까운 세월동안 제주항을 드나드는 배들의 안전을 돕고 있다.

## 고마로 | 고마장

**고마로**는 옛날 말을 키우던 고마장이 있었던 곳으로 백성들로부터 징발한 말을 사육했던 곳이라는 의미이다. 고마장은 지금의 일도2동 부근에 있던 목장인데 예전에는 넓은 숲이 있어 수천 마리의 말을 키웠다고 한다. 영주십경 중의 하나인 고수목마는 바로 이곳 고마장에서 방목되던 수천 마리의 말이 뛰어노는 풍경을 말한다. 지금은 도시개발로 많은 건물이 들어서면서 숲과 목장의 흔적은 찾을 수 없게 되었지만, **고마로** 양 옆에 달리는 말을 형상화한 상징물을 세워 고마장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